

| 글. 이지현\_ Lee, Ji-hyun  
• 건축디자이너

## 건축에서 과거와 현재의 관계\_ 전통유산의 현대적 해석

Relations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in Architecture ; a Modern 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Legacies

건축을 흔히 “관계의 예술”이라고 한다. 건물과 주변 공간과의 관계 또는 건물 안에서 친밀공간과 공용공간의 관계 등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개념을 전통과 현대라는 시공간의 연결로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어떨까? 과거 유산과 전통을 수용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건축적 시도는 글로벌스탠더드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적 전통의 의미가 퇴색하는 오늘날 더 간절한 듯하다.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외국 자본과 첨단 기술의 급격한 도입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 건축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다음의 세 작품은 자국의 전통유산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려는 일단의 경향으로 건축에서 과거(전통)가 어떻게 현재에 접목할 것인지 그 “관계”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준다.

홍콩에 본사를 둔 로코 디자인(Rocco Design)의 <변형된 코트야드 하우스 Distorted Courtyard House>는 동양과 서양, 현대와 전통문화가 병합된다. 중국 건축의 전통적인 건축적 “유형 Typology”인 중정(中庭)이라는 개념을 현대적 사용자 그리고 지형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변형한 흥미로운 예다.

만리장성 인근 베이징에 위치한 이 집은 전통적 마당 집의 “변형 또는 일탈된” 버전으로, 작가 로코 임(Rocco Yim)은 두 가지 의미로 전통으로부터의 “변형/일탈”을 설명한다. 첫째로는 사이트와 뷰(View) 방향의 일치를 준수하는 전통적 구성배치에서 벗어난 평면이며, 두 번째는 현대적 Holiday Residence 답게 외부 자연환경과의 조화로 시공을 초월하듯 전통적인 대나무로 만들어진 지붕 형태의 “변형”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구현한 현대적 공간 개념은 전통과 맥을 같이한다는 데에서 연속성을 발견한다.



카이스트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전체적인 공간 및 사회문제 등에 뜻을 두고 이탈리아로 건너가 밀라노에서 건축/도시계획을 전공하였다. 지금은 international corporate firm HOK에서 주로 중국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디자인/설계 일을 하고 있다.



Distorted Courtyard House

전통과의 공존에 따른 두 번째 프로젝트는 양저우, 상하이의 북서쪽에 위치한 대나무 찻집(Tea House)이다. 이는 HWCD의 파트너인 중국 건축사 썬 웨이에 의해 설계되었는데, 전통적인 정원의 원리를 수용하여 자연 환경에 녹아들 듯한 중국 정원의 현대식 버전을 창조하고자 한 것이다. 수직으로 배열된 대나무는 때에 따라 벽이 되기도 하고 회랑이 되기도 하면서 “깊이” 있는 시각 효과를 연출한다. 회랑을 이루면서 대나무를 따라 세분화된 공간들이 호수에 비대칭적으로 놓여 있는 방식은 안쪽에 정자들이 배치된 양저우의 전통적인 조경공간 구성과 꼭 닮아 있다.

대나무로 이루어진 마당은 건물과 빈 공간의 단절 및 연결을 반복하면서 내부풍경을 물이 담아내도록 하고 있다. 단순한 건물 형태는 오히려 빈 공간을 강조하고 드러내는 효과를 낳는다. 이를 단단한 재료인 벽돌과 대나무로 한 것도 전통과의 공존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이지만 현대건축 논의에서 활발히 떠오르던 파라메트릭 설계(Parametric Design)를 전통적인 건축언어에 도입하고자 한 시도가 있다. 이는 상해에 본사를 둔 Archi Union의 Philip F. Yuan 작품으로 청두(成都)의 중국 국제무형문화유산공원에 위치한 Lanxi Curtilage 클럽하우스다. 레스토랑, 안뜰과 전용 클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 제조 방법의 텍토닉(Tectonic) 연구를 통해 중국의 전통 건축을 현대적으로 해석했다. 공간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스케일의 중정을 연이어 배치함으로써 전통적 중국 정원의 구성 방식을 따랐다. 건물 지붕의 실루엣은 산과 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전통적인 경사지붕 문화를 암시한다. 마감재로 중국 중정 집의 진한 청색 벽돌을 사용함으로써 현대건축에 전통유산을 담으려 했다. 물의 흐름을 순간적으로 정지시켜 놓은 듯한 벽의 패턴은 파라메트릭 설계기술을 도입하여 얻어진 결과로써 이 역시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했던 중국(동양) 문화의 유산으로 보인다.

건축은 문화, 예술의 여느 영역과 마찬가지로 세계화와 지역화의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갈 것이다. 경제성장과 함께 비약적인 세계화가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경우, 전통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화 시도는 그들의 장구한 문화유산을 생각할 때 당연한 추세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의 독특한 전통문화 유산이 현대건축에 잘 융화되어 지나치게 표준화( 획일화 ) 되어가는 건축계에 다양성을 부여할 것이다. ㉮



Lanxi Curtilage House